



노스 캐롤라이나 사역의 핵심: 10월 25일, 2020

타드와 케이티 밀러

태국

타드와 케이티 밀러는 미얀마 동부 인근의 버마라고 불리는 동부 태국에서 봉사하는 해외 선교부의 선교사입니다. 그들의 사역은 산 (Shan)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. 이 종족 그룹은 미얀마 인구의 10 %를 차지합니다. 최근 몇 년 동안 그들은 미얀마 정부와 충돌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태국으로 이주했습니다. 산 사람들은 종종 난민 캠프에 살고 일자리와 더 나은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.

우리 교회는 협동 선교 헌금을 통해 밀러를 후원합니다. 산족 대부분은 불교도이며, 타드와 케이티는 종종 사원을 방문하여 축복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. 감사하게도 산족 중 일부는 타드와 케이티와 같은 선교사들의 일을 통해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. 최근에 밀러가 마을로 운전하며 갔을 때 한 남자가 깃발을 내려 놓고 멈추라 고했습니다. 그는 그들에게 그의 집으로 와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. 그들은 그와 복음을 나누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기도했습니다!

오늘 태국에서 사역하는 타드와 케이티 그리고 그들의 세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고 복음의 좋은 소식으로 많은 산족 사람들에게 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.